전등사·온수리 성당, 족구로 '종교화합'

강화 전등사 · 성공회, 6월 25일 제7회 족구대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개
장년 신도층 족구대회 정례화
종교 간 화합, 지역발전 일익
여암스님 "지역 종교화합 귀감"


전등사 스님들과 대한성공회 강화군 신부들이 6월 25일 족구경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강화 지역 불교, 성공회 소속 종교인과 신도들이 족구로 종교화합의 물꼬를 텄다.

강화 전등사(주지 여암)와 대한성공회 온수리 성당(신부 주성식)은 6월 25일 전등사 남문 주차장에서 '종교화합 족구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전등사와 대한성공회 온수리 성당의 족구대회는 다종교 사회인 한국사회의 종교화합에 일조함과 동시에 두 종교시설이 소재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개최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예방 및 사회적 거리 실천 방침에 따라 3년 동안은 족구대회가 열리지 않았으나,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지침에 따라 족구대회가 재개됐다. 전등사와 온수리 성당의 족구대회는 한 해는 전등사에서, 그 이듬해에는 온수리 성당에서 개최되고 있어 주최 측이 손님을 맞이하는 방식으로 열리고 있다.

이날 족구대회에서는 전등사 스님 대성공회 신부, 전등사 거사림회(중장년층 남성신도회) 대 온수리 성당 장년회, 전등사 여성신도회 대 온수리 성당 여성신도회가 경기를 벌였다. 승패를 떠나 선의의 경쟁을 벌인 전등사와 온수리 성당은 앞으로도 종교화합과 온수리 지역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이날 족구대회에서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종교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암 스님은 "불교의 자비와 성공회의 사랑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을 것"라며 "성당과 교회가 많은 강화도에서 별다른 종교간 다툼이 없는 것은 이웃 종교에 대한 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전등사 거사림회와 온수리 성당 장년회의 족구대회는 강화도의 종교화합에 귀감이 될 만한 본보기"라며 "전등사는 앞으로도 종교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이웃종교와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수리 성당 주성식 신부는 축사를 통해 "족구대회를 준비하신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을 비롯한 전등사 스님과 신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웃종교 간 화합과 친선을 위해 온수리 성당과 전등사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공회 온수리 성당은 콩나물을 키워서 판매한 금액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인 '우리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마을'에는 100여 명의 지적 장애인이 직업 재활을 받고 있다. 전등사 회주 학룡 장윤 스님과 대한성공회 김성수 주교는 오래 전부터 강화도의 종교화합과 지역발전에 뜻을 같이해오고 있다.

'不二禪' 선취 담긴 추사 난초화 보물된다

문화재청 6월 27일 지정 예고
추사 김정희作 '불이선란도'와
조선 불화 · 동종 · 경전도 함께


보물로 지정예고된 김정희의 '불이선란도'

"난(蘭)을 그리지 않은지 20년, 우연히 그렸는데 하늘의 이치(性中天)가 담겼네. 문을 닫아걸고 앉아 찾아 헤매던 것, 이것이 바로 유마 거사의 불이선(不二禪)이더라. 누군가 이유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비야리성(바이샬리) 살던 유마가 말하지 않았던 것처럼 거절하겠네."

이는 조선 후기 서화가이자 금석학자였던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작품인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의 제발(題跋)다. 유마의 불이선이 투영된 추사의 난초화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추사 김정희의 마지막 난초 그림인 '불이선란도'를 비롯해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 '파주 보광사 동종', '불조삼경' 등 조선시대 불화 · 동종 · 전적 4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6월 27일 밝혔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불이선란도'는 10대 때부터 묵란(墨蘭)을 즐겨 그렸던 추사가 난초를 서예의 필법으로 그려야 한다는 자신의 이론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다. 달준이라는 인물에게 그려준 이 작품은 화면 가운데 난초를 옅은 담묵으로 그리고, 주변에 회화사상 보기 드문 수준의 높은 격조(格調)를 담은 제발(題跋)을 4군데에 썼다. 글씨는 여러 서체를 섞어 썼으며, 글자 모양과 크기에 차이가 있다.

문화재청은 "19세기 문화사를 상징하는 추사 김정희의 학문과 예술 세계를 종합적으로 대변하는 작품으로 높은 예술적 ·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된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는 화기에 있는 기록을 통해 1736년(영조 12)에 제작된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불화이다. 제작한 화승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특색 있는 머리 모양, 여래를 중심으로 짜임새 있고 안정적으로 구성된 구도와 배치 등을 볼 때 팔공산 일원에서 활약한 의균(義均) 등의 화승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석가모니불을 주존으로 한 영산회상도이면서 권속으로 아미타팔대보살에 속하는 지장보살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형식은 19세기 경상도 일대와 서울, 경기도에서 제작되는 후불도의 한 유형이다.

문화재청은 "석가 신앙과 아미타 신앙의 융합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조선 후기 불화의 형식과 신앙 변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작품"이라며 "더불어 도설된 내용과 화기에 기록된 화제가 일치하여 18세기 전반 영산회상도 도상 연구의 기준이 되므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파주 보광사 동종'은 주성기(鑄成記)를 통해 천보(天寶)가 청동 300근을 들여 1634년(인조 12) 제작했음을 알 수 있는 동종이다. 중국종의 형식에 우리 고유의 미감을 반영하는 조선 전기(15~16세기) 동종의 새로운 양식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특히 천보(天寶)의 마지막 작품으로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의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공예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부천 석왕사 소장 〈불조삼경〉은 원나라 판본을 바탕으로 1361년(공민왕 10) 전주의 원암사에서 번각한 목판본이다. 중국 원나라 고승인 몽산 덕이가 석가모니 부처님과 조사(祖師)가 설법한 3가지의 경전을 결집한 불서(佛書)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김정희 필 불이선란도',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 등 4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익명 스님, 동국대 WISE캠에 3억원 '쾌척'

6월 19일 장학기금 전달

동국대 WISE캠퍼스 학생들의 장학금에 써 달라며 익명의 스님이 3억 원을 쾌척해 귀감이 되고 있다.

동국대 WISE캠퍼스는 "익명의 스님이 지난 6월 19일 동국대 WISE캠퍼스 인재양성 장학기금으로 3억 원을 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장학금은 스님이 마지막 회향을 앞두고 평소 근검절약해 모은 소중한 정재인 것이 알려져 그 의미가 크다. 스님은 "불교인재 양성과 불교종립대학인 동국대 WISE캠퍼스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게 됐다"며 "불교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는 동국대 WISE캠퍼스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및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도 불교인재 양성과 불교종립대학 동국대 WISE캠퍼스 발전을 바라는 스님과 불자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에도 익명의 노스님이 동국대 WISE캠퍼스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한편, 동국대 WISE캠퍼스는 기부금을 인재육성 장학금과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1인 미디어 시대, 포교동력 기대"

조계종 포교원, 제4기 불교 크리에이터 위촉



포교원(원장 범해)은 6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제4기 불교 크리에이터 위촉식'을 열고, 현밀 스님을 비롯한 크리에이터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사진〉

제4기 크리에이터는 △'뭉밀이' 캐릭터로 기초교리를 담은 일러스트를 선보이는 현밀 스님(부따밀밀) △불화에 현대적 요소를 더해 디지털아트로 표현하는 김동현(태산) △디지털아트를 활용해 불교명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김상규(스튜디오무상) △템플스테이 웹드라마를 스케치코미디와 결합해 선보이는 차준호(차씨네) △유튜브에 사찰탐방 콘텐츠를 담을 심효빈(추추비니) △중학생 대상 불교콘텐츠를 제작하는 김권태(요즘학교) △한복을 입고 사찰 여행을 떠나는 이서윤(절데렐라) 등 7명이다.

이 자리에서 범해 스님은 "요즘은 사람과 대화하기보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많다. 그만큼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큰 시대"라며 "세상 변화에 따라 포교 방편도 변해야 한다. 불교가 사회 속에 스며들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7대 종단 신도들, '탄소중립' 실천 다짐

한국사회평화협의회, 세미나 · 캠페인 펼쳐


흑석역 1번 출구 앞에서 탄소중립 캠페인에 나선 7대 종단 신도 대표들.

7대 종단 신도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대표회장 주윤식, 이하 한사평)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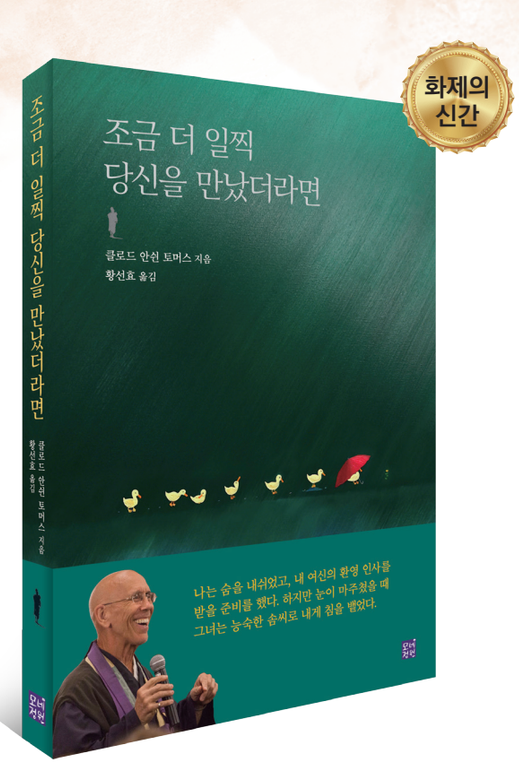
한사평은 6월 24일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 일원에서 올해 첫 공식활동인 '2023년 답게살겠습니다 세미나'와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주윤식 대표회장은 "함께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2023 답게살겠습니다 운동의 범국민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흑석역 1번 출구 앞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이 펼쳐졌다. 한사평은 "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탄소중립 실천을 약속하고, 7대 종단 신도 대표들이 탄소중립 피켓 퍼포먼스를 펼쳐 개개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